

오가노히기노미코토

오가노 히기는 세상에 내려온 하치만 신을 처음으로 본 사람으로, 우사 신궁의 기록에 등장하는 6세기 무렵의 반전설적인 인물입니다. 오가노 히기는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 근처에 있는 오미와 신사의 신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. 568년 그는 긴메이 천황(509~571)의 칙명을 받고 우사 지역에서 일어난 불가사의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규슈를 방문했습니다.

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신령스러운 일에 틀림없다고 확신한 오가노 히기는 집 안에 칩거하면서 특정 음식을 끊고 몸을 정화하며 3년 동안이나 기도를 올렸습니다. 신사의 기록에 따르면 571년 드디어 그의 기도가 이루어져 영험한 고레이스이(御靈水) 샘(御靈水) 근처에서 그의 앞에 신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. 대나무 잎 위에 앉은 3살짜리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은 나라의 수호자가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. 그리고 오가노 히기는 하치만 신을 숭배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.

전설에 따르면 그 이후 매의 모습으로 변한 하치만 신은 708년에 야칸강 근처의 소나무로 날아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무례하게 떠들자 하치만 신이 분노했습니다. 격분한 하치만 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오가노 히기와 한 무너는 천일 동안 기도를 올리고 하치만 신을 위해 처음으로 다카이 신사라는 신전을 세웠습니다.

다카이 신사로 옮겨진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치만 신은 신탁을 통해 이 장소도 길을 오가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다며 신전을 옮길 것을 요구했고, 716년 하치만 신은 오야마다 숲에 있는 신전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. 그럼에도 다시 한 번 경내가 너무 좁다는 신탁이 내려지면서 결국 오구라산 정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. 725년에 신을 모시는 신전이 오구라산에 세워졌고, 이 신전은 곧 우사 신궁이라 불리는 거대한 신사로 발전해 나갔습니다.

하치만 신앙의 번영에 기여한 오가노 히기는 말사(큰 신사에 소속된 작은 신사)의 신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 오가노히기노미코토로서 우사 신궁의 계구(下宮, 아래쪽 신사)에 모셔져 있습니다.